

“어린이부터 건축인까지…광주 건축문화 대축제 열린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내달 7~10일 광주시청 일원서 제2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지역 건축인들의 작품부터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까지 광주의 건축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축제가 열린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오는 10월7일부터 10일까지 광주시청 일원에서 '제2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지역 건축인들의 작품과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축을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건축 작품 전시와 공모전, 학생 작품전, 사생대회, 시상식 등 건축인과 학생,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화제는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 소속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등 3개 건축단체가 함께 준비했다. 이들은 건축 실무, 문화예술, 학술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3단체로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건축인 작품·대학생 아이디어·어린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

광주 민주주의 건축으로 풀어낸 '호응'

한정된 예산·전시 공간 등은 축제

위해 행사에 힘을 모았다.

올해 문화제에서는 지역 건축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대거 마련된다. '광주건축·전남건축가회전'과 '광주·전남 건축사 작품전'을 비롯해 '광주건축대전', '2026 올해의 건축상', '2026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등 지역 건축계의 주요 작품과 성과를 소개한다.

지역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예비 건축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광주·전남 건축 관련 학과 학생 우수작품전에는 광주대와 광주여대, 동강대, 동신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이 참여한다.



지난해 열린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건축과 도시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참여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건축도시 그리기 사생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이 바라본 건축과 도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사다. 또 건축도시표현 사전공모전은 전문 건축인, 학생,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해 동안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축물과 공간을 돌아보는 자리도 준비했다.

이렇듯 문화제가 23년째 이어오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과 관람객을 사로잡기 위한 시도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예산과 전시 공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 건축계에서는 건축이 기술뿐 아니라 예술과 도시, 문화가 결합된 분야임에도 광주의 건축문화 관련 지원과 시민들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원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은 "광주의 건

축 관련 예산이 대구와 부산 등 다른 광역도시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축도시문화제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보다는 전시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시민들이 직접 건축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예산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연합회는 과거 시민들과 함께 서울과 부산, 창원 등의 주요 건축물을 찾아가는 선진지 건축투어와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는 투어 등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 전시공간 확보 문제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관련 교육 시스템, 시설,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택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은 "전국 규모 건축 공모전의 출품작이 통상 200점 안팎인 가운데 광주에서 진행되는 공모전에 180점 가량이 출품되고 있다. 이는 광주 민주주의 가치를 건축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공모 등이 전국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광주만의 건축 콘텐트를 자리 잡기 위해 행사 지원뿐 아니라 숙박과 전시시설 등 기반 여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따스한 풍경이 전하는 아름다운 울림

이광남작가 사진전... 21~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1층 시민홀

계절 풍경 중심 사진 30점 선봬

사진집 '자연에 머무는 시선' 발간도

아름다움과 울림을 따스한 풍경에서 찾는 이광남 작가의 사진전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작가가 최근 2~3년 동안 전국 곳곳을 다니며 계절을 중심으로 카메라에 담은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이작가는 오랫동안 '미'와 '울림'을 사진 작업의 중심에 두고 활동해 왔다. 그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이나 빼어난 자연 풍경이 아닌 허물어져 가는 담장 아래 고개를 내민 이름 모를 풀꽃부터 악어가는 가을 단풍, 거친 파도와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풍경까지 주목받지 않는 장면들이다. 그는 사진을 찍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진의 빛과 구도, 후작업을 통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까지가 작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작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작품을 내놓는 데 자신감보다 부끄러움이 앞섰다"며 "'미'와 '울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가 있다는 고민이 시작되면서 빛과 흑백, 레트로 감성 등 다양한 소재와 표현 방법을 시도하며 변화를 찾았지만, 스스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작업이 힘겨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를 주저하던 그에게 다시 힘을 준 것은 주변의 격려였다.

이작가는 작품을 접한 이들이 건넨 응원에 힘입어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그는 "원하는 풍경을 만나기 위해 이른 새벽 집을 나서고, 단 한 번 셔터를 누를 기회를 기다리며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적지 않다"면서 "그렇게 기다린 끝에 마음에 품었던 한 컷을 얻는 순간이 사진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야 할 길이 멀고 아득하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사진을 두드리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작가는 이번 전시와 함께 사진집 '자연에 머무는 시선'도 발간했다. 사진집은 봄·여름·가을·겨울과 그 밖의 풍경으로 구성되어 이작가가 자연과 일상을 아름다움과 울림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담았다.



주상절리1



일터로 가는길

한편 이광남 작가는 제12회 광주전남사회공헌대상과 광주예총 예술문화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광주매일신문 사진대전 운영위원장, 제7회 광주신록전국사진촬영대회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춘추사진회 회장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오복기자

빛고을 문화예술 미래를 열다

ACC '지역 예비 예술가 발굴전 II'

20일까지 조선대 도자디자인과 학생

10월 전남대·11월 호남대 전시 예정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끌 인재들을 전문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첫걸음에 ACC가 동행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2026 ACC-지역 예비 예술가 발굴전 II'를 오는 11월22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위해 ACC는 지난 4월 호남권 소재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참여학과를 공개 모집했으며 ▲조선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도자디자인전공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10월1~18일) ▲호남대학교 시각융합디자인학과(11월5~22일) 등 3개 학과를 최종 선정했다.

첫 번째 전시로 조선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도자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엔딩 크레딧 (Ending Credit): 마침표와 쉼표'가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자디자인전공 학생 12명



박지현(조선대) 작 '호접지몽'

이 참여해 전통과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풀어낸 도자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학생들이 작품 제작은 물론 전시 공간 구성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시를 준비하는 전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ACC는 지역 예술가들과의 상생을 위해 예비 예술가들에게는 대나무정원을, 지역 신진 작가 및 원로 예술가들에게는 다양한 전시 공간을 할애하는 등 전 생애적인 예술 지원을 하고 있다.

/오복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FM 98.1 MHz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